

6-7 55번

문다에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대박 좋음 ☀

제목 : 나의 재밌는 하루

왠지 오늘따라 일요일이 너무 재밌었다 난 오늘 아침부터 할
머니네 있었다 할머니네 가면 무조건 콩밥을 먹어야 한
다. -- 콩정말 싫는데... 근데!!! 밥을 보니 윤가나는 하얀
쌀밥 *Q* ◇◇ 햇♡ 역시 할머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
걸까? 그 양푼 그래서 닭도리탕과 함께 밥을 비벼먹었다.
내가 제일 늦게 먹었다 얼마나 늦게 먹었는지 원래 할머니
가 밥 먹고 해야 되는 일들을 모두 다 하시고 하다 뒷해TV
까지 심심해하며 보고계셨다. 조금 죄송했다. 오후 2시에 아
빠가 나를 데리러 왔다 2시 30분에 친구들이랑 약
속이 있기때문이다가 친구들하고 놀이터에 앉아 얘
기를 했다. 분위기가 바뀌며.. 각자 힘든 일을 얘기해보라고
모두.. 나와 같았다... 안힘든애가 없었다. 근데 말야..
살이라는 건 막다른 길에서 좌절할때도 있고. 슬퍼할때도
있는거라고..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지라. 대신 대안이면 되
는거라.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.. 난.. 가족이 너무 싫어,
심장쪽에 부약감을 대고 자살시도해보려 했고, 옥상에 올라가
서 떨어질려 했었어.. 근데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한계가
나아졌었어.. 힘들고 아플때.. 울고싶을때.. 친구에게 얘기해보
친구밖에 없음그러게 친구와 3시간을 놀고.. 라면을
먹었다 거기다 햄을그러 너무 맛있었다가 --◇

정말.. 재밌는 하루 였다. 이글을 읽고 있는 사람
두에다